

“국경 넘어 문화·경제 소통에 앞장”

‘OAC원아시아클럽 광주’ 출범 김국웅 이사장·신일섭 회장 선출

아시아 지역 시민간 친선교류와 경제·사회·문화 영역에서의 협력을 목적으로 결성된 ‘OAC원아시아클럽 광주’가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원아시아클럽 광주는 지난 25일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를 갖고 클럽 이사장에 우리로 광통신 김국웅 대표, 회장으로는 호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신일섭 원장을, 감사에는 광주 기업주치의센터 김영집 센터장과 이철원 변호사를 각각 선임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원아시아클럽 서울’ 김규택 이사장을 비롯해 윤봉근 광주시의회의장, 정용화 호남미래연대 이사장, 발기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출범을 축하했다.

또 원아시아클럽을 위해 1200여원의 사재를 출연한 ‘원아시아클럽 동경’의 사토요지(재일교포 3세)이사장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 자리에서 이사장으로 선임된 김국웅 대표는 “원아시아클럽 광주가

‘아시아의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하나의 아시아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창립취지에 맞게 각 분과 위원별로 열심히 활동해 외연을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신일섭 회장은 “원아시아클럽 광주 출범으로 지역의 세계화나 국제적인 사회활동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에 이어 한국에서 두 번째로 공식 출범한 원아시아클럽 광주는 앞으로 1년에 2차례 총회를 비롯해 예술제, 봉사활동, 홈스테이 등 오프라인 뿐 아니라 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활동을 통해 아시아국가와 교류를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원아시아클럽은 20~30년 후 아시아에 유럽의 EU와 같은 하나의 공동체를 설립한다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원아시아클럽 광주가 국제적인 사회활동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지역 사회



21세기 아시아 시대 부흥과 친선교류를 위해 결성된 ‘원아시아클럽 광주’가 지난 25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원아시아 클럽=아시아 지역 시민들이 민간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친분을 쌓고 점차 유럽의 EU와 같은 아시아 지역 국가 통합을 이루는데 밑거름 역할을 하자는 취지에서 2003년 발족한 비영리단체이다. 현재 아시아 각계 각층의 유력 인사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등 7개국에 13개의 자매단체가 결성되어 있으며, 아시아 48개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의 소통과 사회·경제·문화적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의지를 다졌다. 한편, 원아시아클럽 광주에는 정한주, 윤명희, 김영록, 은미희, 김성의씨 등 각계 인사 70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전국장애인 조례개정 추진연대 내달 1일 진행 상황 결과보고

올해 4월 출범해 장애인인권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자체 장애인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장애인조례개정추진연대가 다음달 1일 서울 이룸센터 지하 1층 누리홀에서 첫 보고대회를 갖는다.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과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전국 지자체의 장애인차별적 조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장애인조례개정 진행상황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장애인조례개정추진연대는 “전문가 중심에서 당사자 중심으로,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새로운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재정 열악” 갈 곳 없는 광주시민단체

수년간 무상 사용 건물, 기업 파산으로 소유주 바뀌어

내달 15일까지 사용·유상 임대 요구했지만 힘들 듯

한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던 10여곳의 시민단체가 건물을 비워달라는 건물주의 요구에 난처해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열악한 재정 탓에 당사 이사할 곳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9일 광주시 서구 화동동 모 건물에 입주해 있는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25일 건물 소유주인 모 주식회사로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건물을 비워달라”는 공문을 받았다.

이 건물은 당초 광주 모 중견기업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로, 10여곳의 시민단체들은 이 기업의 배려로 수년째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일부 공간은 회의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로 사용했다.

그런데 이 기업이 파산하면서 지난해 경매로 지금의 소유자가 건물을 낙찰받았고, 최근 이 건물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면서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건물에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 여성의 전화, 광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 10여곳이 입주해 있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이 같은 이유로 시민단체들은 유상이라도 임대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그동안 소유주의 배려로 편안한 환경에서 활동을 펼칠 수 있었고, 서로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다”며 “당장 건물을 비우기 힘든 상황이라 시민단체 대표들과 논의해 해결점을 찾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피해자 96%가 여성... 20대 가장 많아

■인권위 사례집으로 본 성희롱 실태

#복돌생산업체에 근무하던 한 여성은 직장 임원이 자신이 보는 앞에서 성적 언동을 반복해 심한 성적 굴욕감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산업체의 이사진 장모씨는 이 여성을 뒤에서 깨안고 가슴 등을 만졌으며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틀어놓고 보라고 했다. 인권위는 장씨는 진정인에게 1000만원을, 회사 대표에게는 성희롱 예방 교육이나 후속 조치에 소홀한 책임을 물어 500만원을 각각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과 김씨에게 손해 배상금 600만원을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여전히 성희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01년 11월 인권위 설립 이후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여성의 성희롱 피해 진정은 모두 970건으로 조사되었으며 ▲2005년 60건 ▲2006년 107건 ▲2007년 165건 ▲2008년 149건 ▲2009년 170건 ▲2010년 212건 올해 6월까지만해도 103건이 접수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접수된 대표적 성희롱 사건 22건과 같은 기간 당사자간 합의 종결된 사건 26건을 묶어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 4집’을 최근 펴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여성들은 직장파괴, 학교, 공공기관 등 사회 전



영역에서 성희롱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희롱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932건 96.1%)이었으며 연령은 20대(41.8%)와 30대(31.0%)가 다수를 차지했다.

진정 접수된 사건의 발생기관·장소를 보면 주식회사(338건 34.9%)가 가장 많았으며 기타회사(169건 17.4%), 교육기관(121건 12.5%), 비영리법인·단체(70건 7.9%), 국가기관(67건 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여성 차별이 없는 사회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이번 사례집이 성희롱예방과 시정, 임벌활동, 정책입안 등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어 성희롱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영화 ‘도가니’ 앰네스티 언론상 특별상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사진)’가 ‘제14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영화 ‘도가니’는 우리 사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함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평을 열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지난 9월 개봉해 엄청난 파장을 일

킨 ‘도가니’는 공지영 작가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것으로 지난 2005년 광주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청각장애 학생들에 대한 성폭행 사건을 다뤘다.

개봉과 함께 실제 사건의 가해자와 학교를 재수사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결국, 지난 18일에는 인화학교의 재단인 우석법인의 설립허가 취소까지 이끌어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 인권상’ 제정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작고한 이돈명 변호사를 기려 ‘이돈명 인권상’을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천주교인권위는 “이 시대의 인권을 위해 실천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인권상을 드림으로써 이돈명 변호사가 남긴 인권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인권의 가치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한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변론을 맡으면서부터 시국사건을 도맡는 등 국내 인권운동의 대부로 활동해왔다. 또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인권위원장, 민변 고문, 조선대 총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등으로 민주화에 기여했다.

천주교인권위는 내달 16일까지 첫 수상자 추천을 받는다. 문의 천주교인권위 사무국 02-777-0641. /연합뉴스



한민족의 전설 삼족오

고구려 대무신왕

한민족 최고의 영웅 판타지! 고구려 대무신왕!

광개토대왕, 장수왕도 “대무신왕”이 없었다면, 위대한 고구려를 이룩하지 못했을 것이다.

한민족의 전설 삼족오, 고구려 대무신왕은 천손의 뜻을 이어받은 고구려 제3대 제왕입니다. 지금부터 한민족 최고의 영웅, 대무신왕을 통해 광활한 대륙으로 뻗어간 고구려의 위대한 기상을 느껴보세요!

광주일보 즐거운 漢字에
고구려 대무신왕이 연재됩니다.

★신청하십시오!★
무료로 한자학습·역사학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간 즐거운한자 구독 신청문의 : ☎ 062)220-0551

주간 즐거운한자는 광주일보를 구독하고 계시는 분이 신청을 하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대능교육 문의 02)2634-2007 www.daemusin.com